Over the Venture

글 _ **송혜자** (한국여성벤처협회 차기 회장)

신화창조 위해 도약하자, 벤처

현대사회는 과학과 정보통신의 급격한 발전으로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정보와 지식들이 엄청난 속도와 양으로 유통되는 이른바 정보화시대, 지식기반사회다. 하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가 되자 점집과 역술원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고 한다. 과학의 도움으로 정보와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인간심리에 내재한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목마름을 아직 현대 과학은 해결해 주지 못하는 듯하다.
첨단 IT기술을 다루는 벤처기업의 대표로서 우리 벤처산업의 새해 운세가 어떨지 궁금해 나름의 생각과 정보로 한해를 예상해보게 된다.

작년은 이제껏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의 연속이었다. 투자와 시장 전반의 여건은 꽁꽁 얼어붙었고 경제적으로도 실로 힘겨운 한해였다. 그러나 대통령의 강력한 경제 살리기 의지와 정부의 벤처 재도약 지원정책 등을 보며 그간의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 벤처 특유의 도전정신이 충만하면서 이제 앞날은 해뜰 일만 남지 않았겠느냐는 조심스런 낙관을 하게된다.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는 여전히 벤처기업을 국가경제발전의 핵심동력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과, 벤처부흥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벤처기업인의 한사람으로 매우 환영한다. 수사가 아닌 실천적인 방안들이 제시되고 집행되는 것에 대해 벤처업계 역시 크게 고무되어 있다. 이는 벤처 육성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 등을 통해 벤처생태계를 조성하여, 기술경쟁력으로 승부하는 벤처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한 축을 담당할 기회를 열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정책으로 벤처업계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구석구석 도전으로 가득 찬 벤처정신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확신한다.

지난 한해 유례 없는 불황과 이로 인한 어두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한민족 특유의 도전정신과 신명을 잠시나마 잃어버렸던 것 같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를 기피하며 한껏 몸을 움츠렸었고, 많은 벤처기업들도 경기침체에 더하여 투자자들과 제도금융권의 외면으로 적극적인 시장개척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 같다.
이제 새해에는 정부의 야심찬 벤처 육성 대책을 통해 기술혁신형 벤처기업의 시장개척과 투자유치가 적극 지원되고, 대기업과 중소 · 벤처기업간의 긴밀한 연결고리가 만들어져 수출과 내수, 투자와 고용이 선순환되어 성장잠재력이 배가되기를 바란다. 이런 과정 속에서 벤처정신은 이 나라에 신명을 불어넣을 것으로 믿는다.

작년 12월, 영국을 방문해 '한 · 영 하이테크 산업포럼'에 참가할 때의 일이다. 우리의 IT기술 시연회를 지켜본 유럽의 IT관계자들은 한국의 첨단 기술력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계약 문의뿐만 아니라, 공동 R&D 센터 개설 등 사업협력 요청이 줄을 이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유럽시장에서 한국의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예상을 뛰어넘는 관심을 보며 국내 벤처기업의 기술력과 잠재력이 매우 높게 평가받은 사실에 매우 고무되었었다.

을유년 새해가 밝았다. 이제부터는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가진 이런 놀라운 잠재력들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시장 구석구석에서 마음껏 펼치게 되기를 희망한다. 실력과 의욕, 도전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충만하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무성한 나무가 되는 성서의 비유처럼, 벤처 친화적 미국시장에서 놀랍게 성장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이제 우리는 벤처의 신화를 창조하기 위해 자신있게 도약할 일만 남은 것이다.